

## 도상학적 방법론을 통한 구약성서 해석의 예: 아가 6장 11-12절을 중심으로\*

김예슬(연세대)

---

### 1. 서론

성서학 및 고대근동 학계에서 도상학에 대한 필요성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고대근동 전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연대 추정에 활용하기 위해 처음 제기되었다.<sup>1</sup> 현대적 발굴방식이 도입되기 이전의 고고학은 체계적인 발굴 기록 없이 가치 있어 보이는 물건들을 찾아내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굴 맥락이 사라진 유물들이 많았고 이들의 연대를 재정리하는 것도 관건이었다. 따라서 초기의 도상학은 이미지를 해석하는 방법론이라

---

\* 이 논문은 제 129차 한국구약학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당시 유익한 논찬과 제안을 해 주신 정미혜 박사님과 토론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논문의 미비점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1 Mirko Novák, "Einleitung und Überblick zur Methode", Erika Bleibtreu and Hans Ulrich Steymans (eds.), *Edith Porada: zum 100. Geburtstag* (OBO 268; Fribourg: Academic Pres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4), 169.

기 보다는, 시대별 및 지역별로 고대 근동 예술의 양식사(history of styles)를 확립해서 특정 스타일을 통해 연대와 지역을 규정하기 용이하도록 발전했다. 하지만 ‘해석’ 방법론에 대한 고민의 부재는 이미지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낳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르네상스 예술사에서 발전한 파노프스키의 도상학적 방법론이 1970년대 이후 고대근동학에 도입되었다.<sup>2</sup>

특별히 구약학에서 도상학을 활용할 때에는 이미지-텍스트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선행되곤 한다. 구약학의 특성상 도상학을 활용할 때에는 이를 통해 텍스트의 해석에 영향을 끼칠 때가 많은데, 텍스트와 이미지는 언어 기호와 시각 기호라는 서로 다른 기호 체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둘을 단면적으로 연결시킨다면 잘못된 해석을 하기가 쉽다. 따라서 구약학 내에서 고대근동의 상황 및 사고 방식에 맞추어 이미지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이미지-텍스트 관계에 대한 담론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했으며, 다양한 방식 및 모델들이 제안되었다.<sup>3</sup>

이 여러 방법론 및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연결시키기 전에 먼저 충분히 각각을 그 문화적 맥락 속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sup>4</sup> 이는 해석하는 구약

2 Yeseul Kim, *Images of Anonymous Women: A Semiotic Approach to Image-Text Relations in Interpretations of Ancient Near Eastern Art and the Hebrew Bible* (OBO; Leuven: Peeters, forthcoming), 5.

3 다음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라. Kim, 5-11.

4 다음을 참고하라. Izaak J. de Hulster, *Iconographic Exegesis and Third Isaiah* (Tübingen: Mohr Siebeck, 2009), 260-261; Joel M. LeMon, "Iconographic Approaches: The Iconic Structure of Psalm 17", Joel M. LeMon and Kent Herold Richards (eds.), *Method Matters: Essay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Hebrew Bible in Honor of David L. Peterse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9), 143-146; Orthmar Keel, *Das Recht der Bilder gesehen zu werden: Drei Fallstudien zur Methode der Interpretation altorientalischer Bilder* (OBO 12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Fribourg: Academic Press, 1992), 271

학자들의 선입견 때문이다. 텍스트를 다루는 데 익숙한 구약학자들이 고대 근동의 생소한 이미지를 처음 접했을 때 이미 익숙한 성서의 텍스트와 바로 연결시킬 위험이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실수들도 있었다.<sup>5</sup>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에 성급히 텍스트를 연결시키기 전에, 텍스트는 텍스트적으로, 이미지는 이미지들 사이에서 충분히 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는 구약학에서 어떤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밝히고자 할 때 아카드어나 우가리트어 등 다른 셈어들과 비교하기 전에 먼저 성서 내에서 충분히 그 단어에 대해 연구해 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렇다면 구약학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약성서 연구에 도상학을 접목시킬까. 르몽(Joel. M. LeMon)은 구약학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도상학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sup>6</sup> 첫 번째는 예술-도상학적 접근(Iconographic-artistic approach)으로, 여기에서는 해석의 대상이 고대 근동의 이미지 그 자체이다. 즉, 어떤 유물이 나타내 보여주는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텍스트적 증거를 활용하면서 성서의 텍스트와 고대 근동의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역사-도상학적 접근(Iconographic-historical approach)이다. 이 경우에는 고대 근동의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성서의 배경이 되는 종교사나 문화사를 재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성서-도상학적 접근 방식(Iconographic-biblical approach)의 경우, 성서의 본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고대 근동의 이미지를 활용한다. 주로 은유 등 비유적 표현들을 밝히는 데 고대 근동 도상학이 많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sup>7</sup>

아래에서는 도상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방법, 특별히 르몽의 구

5 LeMon, 윗글, 143-146.

6 LeMon, 윗글, 146-151.

7 또한 “아브네 제의 스탠드를 통한 아가 2:9의 도상학적 해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15, 13-15를 참조하라.

분 방식에 의하면 성서-도상학적 접근 방식에 대한 한 가지 예시로써 아가 6:11-12을 살펴보고, 성서 본문 해석에, 특별히 비유나 상징적 표현들의 해석에 고대 근동의 이미지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고대 근동의 이미지들을 통해 보는 아가 6장 11-12절의 사랑과 전쟁 모티프

가 6장 11-12절, 특히 12절인 נִפְשִׁי שָׁמַתְנִי מִרְכַּבּוֹת עַמֵּי-נְדִיב לֹא יִדְעָתִי (개역개정 역: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는 아가서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여겨지곤 한다.<sup>8</sup> 11절과 12절의 화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11절의 화자가 초목이 풍성한 동산에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다는 언급이 가지는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환이 ‘내가 모르게’ (혹은 ‘부지중에’) 있었다는 설명은, 화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는 점을 암시하기 때문에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의외의 상황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더욱 어렵다. 12절의 의미가 불분명한 만큼 다양한 해석이 생겨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

8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안소근 옮김), (서울: 가톨릭, 2014), 원제는 Barbiero, Gianni, *Cantico Dei Cantici* (Milano: Paoline, 2004), 548; M. H. Pope, *Song of Song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7), 584; M. V. Fox, *The Song of Songs and the Ancient Egyptian Love Songs* (Lond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156; R. E. Murphy, *The Song of Songs: A Commentary on the Book of Canticles or the Song of Songs* (Hermeneia; Minneapolis, MN: Fortress, 1990), 176; J. C. Exum, *Song of Songs: A Commentary* (OT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5), 213, 222; P. W. T. Stoop-van Paridon, *The Song of Songs: A Philological Analysis of the Hebrew Book הַשִּׁיר הַשֵּׁנִי* (ANESup 17; Louvain: Peeters, 2005), 345-346.

러운 일이다. 본고에서는 아가 6장 11-12절에 대한 다양한 현대 학자들의 해석을 비교해 본 후, 본문에 대한 언어적 분석을 할 것이다. 그 후에 고대 근동의 여러 유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해석하는 도상학을 활용해 고대 근동의 관념 속 여성성과 관련하여 ‘사랑과 전쟁’ 모티프를 분석한 후, 이를 통해 본문을 새로이 읽을 해석적 제안을 하려 한다.

### 1) 아 6장 11-12절의 번역 및 해석 비교

아가 6장 11-12절에 대한 한국어 성경 번역들을 비교하면, 11절에서는 화자가 호두 동산 혹은 호두 숲으로 내려간다는 점에서는 각 번역들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는 반면 논란이 되는 것은 주로 12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어 번역들은 다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사건의 반전이 일어났음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내 마음이 끌려(새한글), 내 마음이 움직여서(공동번역/공동번역개정),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표준새번역/새번역), 혹은 내 마음이 주체가 되어서 객체로서의 나를(개역한글/개역개정) 그렇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화자의 마음과 화자의 의지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나타내 보여준다. 그 다음 부분에서 해석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화자는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 타거나(표준새번역/새번역), 암미나답의 전투 수레에 올라 타거나(새한글), 화자가 ‘왕자답게’ 백성의 병거에 올라 타거나(공동번역/공동번역 개정), 아니면 정확하게 탔다는 기술 보다는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다’ 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표현하기도 한다(개역개정/개역한글). 번역들을 보면, 히브리어 מְרֻכָּבוֹת עַמִּי־נָדָב(마르크보트 아미 나디브)가 ‘왕자들이 타는 병거’, ‘암미나답의 전투 수레’, ‘귀한 백성의 수레’와 같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왕자답게’ 라는 부사가 유추되기도 한다(공동번역).

이때 일인칭 ‘나’가 누구인지도 역본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개

역개정/개역한글은 표기하지 않는 가운데, 표준새번역/새번역과 공동번역/공동번역 개정은 남자가 발화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새한글 성경은 이 일인칭 주어를 여자의 목소리로 해석하고 있다.

고대 번역들도 통일된 해석을 보이지 않는다. 칠십인역은 נַפְשִׁי(나프쉬/내 영혼 혹은 갈망)를 יָדַעְתִּי(아다아티/나는 알았다)의 주어로 해석한 반면(οὐκ ἔγνων ἢ ψυχὴ μου ἔθετό με), 불가타는 נַפְשִׁי를 שָׂמַתְנִי(싸마트니/나를 놓았다 혹은 만들었다)의 주어로 이해했다(*nescivi anima mea conturbavit mea*).<sup>9</sup> 칠십인역에서 שָׂמַתְנִי의 주어는 불확실하며, 불가타는 שָׂמַתְנִי의 원형을 נַפְשִׁי가 아닌 עָמַם으로 해석하고 “내 영혼이 아미나답의 전차 때문에 나를 불안케 만들었다”고 이해했다.<sup>10</sup>

그렇다면 현대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표 1>은 논란이 되는 아가 6장 12절에 대한 다양한 현대 주해들 중 가장 특징적인 해석들을 비교해 보았다.<sup>11</sup>

폭스(M.V. Fox)와 김구원은 이 본문의 맞소리 텍스트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시리아 페쉬타 역을 따라 עָמַם נַפְשִׁי를 נַפְשִׁי עָמַם로 읽는다.<sup>12</sup> 포프(M.H. Pope) 또한 עָמַם נַפְשִׁי에서 요드(י)를 1인칭 접미사로 보는 게 아니라, 문법적 의미 없이 음절을 늘리기 위한 음성학적 첨가(paragogic)로 보고, 의미상으로는 נַפְשִׁי עָמַם(임 나디브), ‘왕자와 함께’,

9 트렘퍼 롱맨 3세, 「아가」(권대영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원제는 Tremper Longman III, *Song of Songs* (Grand Rapids: Eerdmans, 2001), 231; Danilo Verde, *Conquered Conquerors: Love and War in the Song of Songs* (Atlanta: SBL Press, 2020), 119; Pope, 윗글, 584-585.

10 이 한국어 번역은 다음에서 인용했다. 롱맨, 윗글, 231. 다음도 참고하라. Murphy, 윗글, 176.

11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 때문에 해석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들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본고는 아 6:11-12 노래를 최초로 부르고 이를 들던 청중들의 해석에 주안을 두기 때문에 알레고리 해석은 논의에서 배제시켰다.

12 Fox, 윗글, 156; 김구원, 윗글, 273.

〈표 1〉 아가 6장 12절에 대한 현대 주석가들의 번역 비교

출처	화자	12절에 대한 번역
김구원, 271쪽	여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열정이 나를 존귀한 자와 함께 마차 위에 두었습니다.
이유미, 171쪽	남자	나도 알지 못하는 새에 나의 영혼이 나를 고결한 나의 백성의 병거들 [사이에] 두었다.
바르비베로, 494쪽	남자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나의 갈망이 나를 나의 고귀한 민족의 병거들에 태워 갔네
Pope, 552쪽	여자	Unawares I was set, in the chariot with the prince
Fox, 154쪽	여자	I do not know myself – <you've placed me in a chariot with a nobleman>!
Murphy, 174쪽	여자	Before I knew it, my heart made me <the blessed one> of the prince's people
Keel, 225쪽 <sup>13</sup>	여자	Before I was aware, my [desire] set me in [the chariots of Amminadib]
Stoop-van Paridon, 350쪽	여자	I will not know./ My desire will make me/ Into chariots of my people of a nobleman.
Verde, 118쪽	남자	I am shocked; she turned me into chariots of Amminadib

즉 여자가 부지불식간에 남자 연인이 있는 수레에 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케를 같이 한다.<sup>14</sup> 이때 여자는 고귀한 자인 연인과 함께 한 병거에 타고 있는 그림이 된다.

13 Othmar Keel, *The Song of Songs: A Continental Commentary* (Frederick J. G. tr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14 Pope, 윗글, 589.

이유미는 화자를 남자로 보고 있다. 이유미의 해석에서 12절은 “화려한 고관의 병거들에 둘러싸여 연인을 만나러 가는 행렬을 묘사”하는 것이다.<sup>15</sup> 즉, 남자가 여자와 사랑을 나누러 가는 모습이 마치 꿈을 꾸듯 화려한 병거 행렬에 둘러싸여 간다는 것이다.<sup>16</sup>

머피(R.E. Murphy)는 여자가 호두 정원에서 남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거대한 사랑을 느끼고 “내 백성의 축복받은 자”가 된 것이라고 해석한다.<sup>17</sup> 이러한 해석은 본문의 מְרַבֵּחַ의 모음 부호와 자음에 수정을 거쳐 מְבֹרָחַ (메보레헛/축복받은)으로 고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sup>18</sup>

스툼-반 패리돈(P.W.T. Stoop-van Paridon)의 해석은 아가 전체를 하나의 드라마로 해석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은 솔로몬의 하렘에 있지만 양 치는 목자인 남자와 진실한 사랑 관계에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6장 11-12절은 여자가 정원에서 목자인 남자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갔으며, 현실은 솔로몬의 하렘에 갇혀 있지만 그녀의 욕망이 언젠가는 그녀를 그녀의 고귀한 사람들의 병거로, 즉 사랑하는 목자와 함께 있도록 이끌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다.<sup>19</sup>

킬(O. Keel)과 베르데(D. Verde)는 공통적으로 עֲמִינָדִיב를 고유명사인 아미나답(Aminadib)으로 이해하고,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아미나답(Aminadab)과 연관된 이름으로 해석한다.<sup>20</sup> 또한 이 둘의 해석에서 병거는 남성성과 연관된다. 하지만 킬의 해석에서 여성인 화자가 그녀의

15 이유미, 「아가」(연세신학백주년기념 성경주석 20;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171.

16 이유미, 윗글, 171.

17 Murphy, 윗글, 179.

18 Murphy, 윗글, 176.

19 Stoop-van Paridon, 윗글, 349-351.

20 Keel, 윗글 (1994), 226; Verde, 윗글, 120.

열정을 통해 ‘병거’ 즉 남자 연인의 화려함과 귀족다움을 보여주는 장소로 옮겨진 것이라면,<sup>21</sup> 베르테의 해석에서는 남자인 화자가 여자 연인의 아름다움과 성적인 매력에 반해 불리일으켜진 갈망이 마치 군대와도 같이 강력하다는 의미에서 남자의 갈망 및 남성성이 병거에 비유된다.<sup>22</sup>

이와 반대로 바르비에로(G. Barbiero)는 여자의 여성성이 병거에 비유되는 것이라고 본다. 바르비에로의 해석에서 화자는 남자이며, 언급되는 ‘병거’는 아가 전체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군사 은유’에 속하는 것으로 본문의 맥락에서는 남자를 압도하는, 여자의 “인격화된 사랑의 힘”이 공격적으로 표현된 방식이다.<sup>23</sup> 남자 연인은 여자를 향한 갈망 속에 스스로 “자신을 공격하는 군대의 병거에 오르기”를, 즉 여자의 사랑에 압도되기를 선택한 것이다.<sup>24</sup>

이 12절 본문은 몇몇 학자들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그 자체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혹은 본문이 전승 과정에서 훼손되었다고 볼 만큼 난해하며,<sup>25</sup> 그만큼 독자들의 주관적인 해석에 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다양한 해석들 중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떤 것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대 번역본들조차도 맛소라 사본의 번역에 어려움을 겪은 흔적이 있다는 것은, 맛소라 사본의 어려운 본문이 더 원형에 가까울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한 이유미가 주장하듯, “수정을 가한 번역이 완전한 이해를 제공해 주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소라 본

---

21 Keel, 윗글 (1994), 226-228.

22 Verde, 윗글, 123-124, 127-130

23 바르비에로, 윗글, 551.

24 바르비에로, 윗글, 557.

25 예를 들어, Exum, 윗글, 224; 강승일, 윗글 (2013), 144-145; 룡맨, 윗글, 231; Murphy, 윗글, 176.

문이 전하는 방식을 먼저 숙고해보아야 한다.”<sup>26</sup>

본고에서는 맛소라 본문의 독법을 그대로 따르는 가운데, 문맥 및 고대 근동 맥락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자 한다.

## 2) 아가 6장 11-12절에 대한 언어적 분석

필자는 아가는 여러 사랑시의 모음집이라고 생각한다.<sup>27</sup> 따라서 하나의 시가 앞 뒤의 다른 시와 꼭 연결될 필요는 없지만, 각 시의 범위에 대한 학자들 간의 통일된 견해가 없는 상황에서 6장 11-12절의 바로 앞뒤 맥락을 살펴보는 일은 필요하다.

아가 6장 4-10절은 와쯔프(*Wasf*)라는 문학 양식을 활용해 여자 연인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sup>28</sup> 신체 각 부분에 대한 묘사 이후 여자의 유일성, 완전성에 대한 찬미가 나온다(8-9절). 다른 어떤 여자와 견주어도 연인의 탁월함이 돋보인다. 10절에서는 이러한 여자의 뛰어난 을 해와 달 같은 천체에 비유하고, 이는 군대에도 같이 경외감과 두려움을 일으킨다.

11-12절 이후에 등장하는 7장 1-6절은 또 다른 와쯔프이다. 7장 1절에서는 술람밋이라고 불리는 여자의 춤이 등장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는 ‘마하나임’ 혹은 군대의 두 진영과 연관돼 있다.<sup>29</sup> 2-6절을 통해 묘사되는 여자의 몸의 아름다움은 마지막 6절 하반절에서 왕을 포

---

26 이유미, 윗글, 171.

27 아가서의 장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강승일, 윗글 (2013), 20-37; 이유미, 윗글, 14-26; 김구원, 윗글, 35-43.

28 와쯔프는 고전 아랍 문학에서 차용해 온 용어로, 신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은유를 통해 묘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바르비에로, 윗글, 44-45; Fox, 윗글, 269-275; 김구원, 윗글, 196-197; Exum, 윗글, 20.

29 필자는 7:1-6을 하나의 시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Kim, 윗글, 201-204.

로로 사로잡을 만큼의 힘을 지녔다.

이를 통해 볼 때, 아가 6장 11-12절의 전후 맥락은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이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점은 여자의 아름다움을 천체, 군대, 왕을 포로로 사로잡는 힘 같은 두려움과 경외감을 나타내는 힘들을 사용해 묘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6장 11-12절을 좀 더 언어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먼저, 11-12절의 화자에 대한 문제가 있다. 11-12절의 화자가 여자라고 보는 쪽은 대부분 7장 1절과의 연관성을 주장한다. 7장 1절에서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와야 하는 주체는 바로 6장 11-12절에서 동산으로 내려갔던, 혹은 병거로 간 여자라는 것이다.<sup>30</sup> 또한 7:13에서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라는 말을 여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6장 11절의 화자도 여자라는 주장이 있다.<sup>31</sup>

하지만 7장 1절의 **שׁוּב**(슈비)는 ‘돌아오라’는 해석보다 춤이라는 맥락 안에서 빙빙 도는 움직임이나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이 7장 1-6절에 ‘움직임’과 관련된 단어들(지속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 더 잘 들어맞는다.)<sup>32</sup> 이렇게 볼 때 6장 11-12절의 화자가 여자일 필요는 없게 된다. 게다가 베르테가 지적하듯이, 화자가 간 곳으로 표현되는 ‘정원’은 아가서 내에서 항상 여성성을 상징한다(4:12, 16; 5:1; 6:2).<sup>33</sup> 따라서 7장 13절에서 여자는 남자를 자신의 정원, 즉 자신과의 성적인 공간으로 ‘초대’하는 맥락이라면, 6장 11절은 초대가 아니고 화자가 직접 그곳으로 내려갔음을 말하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남자의 발화라고 보는 편

30 예를 들어, 강승일, *윗글* (2013), 144; Exum, *윗글*, 225; Keel, *윗글* (1994), 228.

31 강승일, *윗글* (2013), 144.

32 바르비에로, *윗글*, 560-561; William Lee Holladay, *The Root ŠUBH in the Old Testamen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ts Usages in Covenantal Contexts* (Leiden: E. J. Brill, 1958), 53; A. Graupner and H.-J. Fabry, “**שׁוּב**”, *TDOT* 14, 461-522; Kim, *윗글*, 206-207.

33 Exum, *윗글*, 222; Verde, *윗글*, 119.

이 더 적절하다.

아 6장 11-12절에 대한 또 다른 쟁점은, נַפְשִׁי가 יְדַעְתִּי에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שְׂמַתִּי에 연결된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몇몇 주석자들이 제안하듯 נַפְשִׁי가 יְדַעְתִּי לֹא의 목적어라면 ‘나는 나의 נַפֶּשׁ를 몰랐다’라는 뜻이 되며, 이것을 “나는 정신을 잃었다” 혹은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등으로 해석하곤 한다.<sup>34</sup> 이에 대해서는 욥기 9장 21절에서 נַפֶּשׁ가 יָדַע의 목적어로 쓰이면서 비슷한 용례로 쓰인 바 있으며, 메소포타미아의 의학 문서에서도 비슷한 구문(“he does not know himself”, *ramānšu ul īde*)이 정신적 혼란이나 동요를 나타내며 사용된다.<sup>35</sup> 폭스에 의하면 이집트어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사랑시 맥락에서 상사병의 증상으로 사용된 바가 있다.<sup>36</sup>

하지만 구약성서의 다른 곳들에는 יָדַע לֹא가 목적어 없이 쓰이면서, 그 주체가 정신이 없는 상황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문맥상 주어진 상황 자체를 모른다는 의미로 쓰인 경우들도 존재한다(시 35:8; 잠 5:6b; 욥 9:5 등).<sup>37</sup> 게다가 맞소리 본문의 강제 표시는 נַפְשִׁי가 שְׂמַתִּי의 주어임을 밝힌다.

엑셈이 주장하듯, נַפְשִׁי는 앞의 יְדַעְתִּי와 뒤의 שְׂמַתִּי에 동시에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다. שְׂמַתִּי는 그 자체로 3인칭 여성 주어를 함축하고 있기에, 바로 앞에서 언급된 נַפֶּשׁ를 받아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38</sup> 또한 נַפְשִׁי가 이렇게 앞과 뒤 단어에 모두 연결되는 것은 시적으로

34 Stoop-van Paridon, 윗글, 346; Fox, 윗글, 156; Exum, 윗글, 224.

35 Shalom M. Paul, “An Unrecognized Medical Idiom in Canticles 6,12 and Job 9,21”, *Biblica* 59 (1978), 545. 다음도 참고하라. Verde, 윗글, 119.

36 Fox, 윗글, 156.

37 Stoop-van Paridon, 윗글, 347.

38 Exum, 윗글, 224.

의도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sup>39</sup> 일단 שְׁמַתְנִי נַפְשִׁי가 주어라고 해석한다면, 이 단어가 앞의 לֹא יִדְעֶנָּה와 연결된 관용구로 쓰였든 아니든지간에 의미는 명확하다. 화자는 혼란스러운 상태이고, 그 이유는 화자의 영혼 혹은 갈망이 직접 초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שְׁמַתְנִי מִרְכַּבֹּת עַמִּי נְדִיב 부분과 관련해서 (1) תָּנִי שְׁמִי와 이어지는 병거와의 연관성, 그리고 (2) עַמִּי נְדִיב를 고유명사로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먼저 구약성서에서 מִרְכַּבֹּת은 주로 전쟁에서 쓰이는 ‘병거’를 가리킨다.<sup>40</sup> 따라서 ‘수레’라는 번역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 비록 제의나 축제적 맥락에서 מִרְכַּבֹּת 내지는 מִרְכָּבָה가 쓰인 적이 있다고는 하지만(창 41:43; 삼하 15:1; 사 22:18),<sup>41</sup> 이러한 축제나 의식 또한 군사적 힘을 상징하는 범주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포프는 고대 근동의 사랑시 및 원통형 인장에서 등장하는 제의 맥락 안에서의 병거들을 이야기하는데,<sup>42</sup> 이들도 마찬가지로 신들의 강력한 힘을 등장하는 상징물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여전히 전쟁의 맥락을 포괄하고 있으며, 사랑시에서도 병거들은 그 주체의 힘을 드러내 보여주는 도구로서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43</sup> 베르데가 지적하듯이, 구약성서에서 전반적으로 병거란

39 바르비에로, 윗글, 549 각주 151.

40 Verde, 윗글, 121; 바르비에로, 윗글, 551.

41 이유미, 윗글, 171.

42 Pope, 윗글, 590-591.

43 아가서에서 등장하는 ‘말’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의미를 포괄한다. 한 예로, 1장 9절에서 여자는 파라오의 암말에 비유되는데, 10-11절과의 연관성에 따라 금은 장식품으로 꾸며진 말의 아름다움에 비유된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으나, 다른 동물이 아닌 분명하게 전쟁의 함의를 지닌 말에 비유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베르데는 이 구절에서 말이 가진 전쟁의 함의가 어떻게 여자에 대한 메타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 설득력있게 논증하며, 여자의 저항할 수 없는 힘과 매력이 말에 비유되었다고 해석한다. Verde, 윗글, 134-151.

‘군사적 힘’을 상징하는 것이다.<sup>44</sup>

그렇다면 이러한 병거와 שְׁמַתָּי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שְׁמַתָּי와 뒤에 따라오는 מַרְכָּבֹת 사이에 전치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중목적어(double accusative)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나의 영혼 혹은 나의 욕망이 나를 전차 ‘안에’나 ‘위에’, 혹은 ‘사이에’ 놓은 것이다. 몇몇 맛소라 사본들 중에는 ‘병거들’을 나타내는 מַרְכָּבֹת 앞에 전치사 כִּנּוּ나 비교를 나타내는 כִּי를 붙이기도 한다고 한다. 하지만 부사적 목적격 구조(adverbial accusative construction)로 본다면 전치사 없이도 ‘안에’ 혹은 ‘가운데’ 혹은 ‘같이’ 등의 의미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sup>45</sup> 후자의 경우, 나의 영혼이나 욕망이 나를 전차가 되게 만든 것이 된다.<sup>46</sup> 병거가 되느냐, 병거 위로, 혹은 병거들 사이로 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점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 바로 ‘병거’라는 군사적 힘에 비유된 그 무엇으로 화자가 이끌렸다는 것이다.

עֲמִי-יָרִיב의 정체에 대해서는, 본문에 수정을 가하지 않는다면, 주로 두 가지의 견해로 양분된다. 이것이 고유명사를 가리킨다고 보거나, 아니면 일반명사가 연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아미나답’이라는 성서에 등장한 적 없는 새로운 인물로 보기도 하고, ‘아미나답’이라는 이름을 다르게 표기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sup>47</sup> 고유명사로 읽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칠십인경과 불가타가 그렇게 읽는다는 것과 이어지는 7장 1절에서 술람밧이라는 별칭이 등장한다는 점을 강조한

44 Verde, 윗글, 122.

45 Pope, 윗글, 586; 바르비에로, 윗글, 550-551; Exum, 윗글, 213.

46 Stoop-van Paridon, 윗글, 349; Verde, 윗글, 120. 하지만 베르데의 해석에서 שְׁמַתָּי의 주어는 여자 연인인데, 그는 שְׁמַתָּי가 이미 יָרִיב의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שְׁמַתָּי의 주어로는 쓰일 수 없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47 Verde, 윗글, 120; Keel, 윗글, 226-228.

다.<sup>48</sup> 일반명사로 보는 경우에는 구약성서에서 사람의 이름을 서로 분리된 두 단어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7장 2절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활용한 **בַּת־נָדִיב**(בת 나디브/고귀한 자의 딸 혹은 고귀한 여자)가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로 사용되었음을 강조한다.<sup>49</sup> 이 경우, **בַּת־נָדִיב**를 명사로 보는지 형용사로 보는지, **נָדִיב**의 '가 일인칭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의미 없이 첨가된 것(paragogic)으로 보는지에 따라 문법상의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sup>50</sup> 필자는 7장 1절에 등장하는 술람밋 또한 정관사로 수식되었기에 고유명사가 아니며, 두 단어로 떨어뜨려 이름을 표기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 그리고 7장 2절의 **בַּת־נָדִיב**와의 연관성을 들어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로 해석하려 한다. 그리고 일단 고유명사가 아닌 것으로 확정한다면, 명사든 형용사든 그 문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귀한'이라는 의미가 강조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sup>51</sup>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12절에 대해 본고에서 제안하는 임시적인 해석은 남성 화자가 발화하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 영혼이 나를 (내) 고귀한 백성의 병거들로 옮겨놓은 줄은요” 정도가 될 것이다. 이를 앞에서 살펴본 전후 맥락, 즉 여자 연인의 탁월함, 유일함, 위대함을 천체나 병거와 같은 위엄을 자아내는 요소들을 활용해 묘사하는 흐름 속에서 본문을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11절에서 남자 연인이 여자의 성적 매력 내지는 여자와의 성적 합일을 상징하는 호두 정원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과 푸른 초목을 보기를 기대했으나, 실제로 그가 마주친 것은 많은 수의 병거들이 자아내는 위엄이었기 때문에 남자

48 Keel, *윗글*, 226-228.

49 바르비에로, *윗글*, 554.

50 Murphy, *윗글*, 176; 바르비에로, *윗글*, 553-555.

51 Stoop-van Paridon, *윗글*, 350.

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 본문은 11절에 동산의 꽃과 초목을, 12절에는 병거를 병렬적으로 배치시킴으로써 초목과 병거와의 대비를 드러내고, 그 가운데에 'לֹא יָדַעְתִּי נַפְשִׁי', 즉 '나는 몰랐다' 내지는 '나는 정신을 잃었다'는 언급을 놓아 이 두 대비적 성질 사이에 급작스런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성적 매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동산의 꽃과 초목은, 순식간에 강력한 군사적 힘을 나타내는 병거로 바뀐다. 이러한 해석은 큰 틀에서 바르비에로의 해석과 궤를 같이 한다. 즉, 여자의 사랑의 힘이 강력한 병거에 비유되었고, 거기에 남자 연인이 압도되는 것이다.<sup>52</sup> 바르비에로는 이 배경에 "사랑의 여신의 전투용 말과 연관된 신화적 전통이 있을 것"이라고 간략하게 제안하고 넘어간 바 있다.<sup>53</sup> 아래에서는 6장 11-12절이 어떻게 사랑의 여신과 관련된 고대 근동의 신화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도상학을 활용해 논해보고자 한다.

### 3) 고대 근동 도상학을 활용한 6장 11-12절에 대한 해석

아가 6장 11-12절 본문에 대한 본고의 해석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먼저, 병거의 군사적 힘은 여자 연인 혹은 그녀의 어떠한 특성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이며, 11절과 12절은 이를 각각 초목과 병거로 병렬시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 기저에는, '여성은 군사적 힘에 비유될 수 있다'는 생각과, '초목과 병거, 혹은 생명의 힘과 군사적 힘은 대조적으로 보이지만 동일한 힘의 서로 다른 측면이다'라는 사고 방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개념들은 모두 여성과 관련돼 있다.

마찬가지의 관념들을 고대 근동의 시각적 유산에서도 발견할 수

52 바르비에로, 윗글, 551.

53 바르비에로, 윗글, 552.

있다. 먼저 첫 번째 관념, 여성이 군사적 힘에 비유되는 증거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이쉬타르 여신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가 6장 10절에서도 군대의 깃발 모티프를 활용해 여자를 지칭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아가 1장 9절에서 여자는 파라오의 병거의 말에 비유된다. 시리아와 레반트 지역에서 사랑받던 여신 아낏과 아스타르테는, 에로틱한 매력을 지닌 여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전쟁의 여신이기도 하다.<sup>54</sup> 아낏과 아스타르테는 도상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데,<sup>55</sup> 이는 이 두 여신이 공유하는 속성이 많은 만큼 비슷한 맥락에서 등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낏과 아스타르테는 레반트와 시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두 여신을 받아들인 이집트에서도<sup>56</sup> 무기를 들고 등장하여 여성성과 군사적인 힘을 아울러 보여준다.

〈그림 1〉은 이집트의 히비스(Hibis)에 있는 페르시아 시대의 신전에서 발견된 말 형상의 등에 새겨진 그림이다. 양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세 인물 모두 아스타르테라고 이름이 적혀 있으며, 이 여신과 군사적 힘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잘 보여준다. 시리아나 레반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그림에 라벨을 거의 붙이지 않는 반면, 이집트에서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문자를 통해 밝히기 때문에 이 무기를 든 여신들이 아낏 혹은 아스타르테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자세나 옷차림 등이 비슷한 도상이 이름표 없이 시리아와 레반트 지역에서 발견되더라도 어렵지

54 P.L. Day, "Anat", Karel Van der Toorn et al.(eds.),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이하 DDD), 2<sup>nd</sup> ed., (Leiden: Brill, 1999), 36-38; N. Wyatt, "Astarte", Van der Toorn et al.(eds.), DDD, 109-114.

55 Izak Cornelius, "Anat", Jürg Eggler and Christoph Uehlinger (eds.), *Iconograph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Ancient Near East: An Iconographic Dictionary with Special Emphasis on First-Millennium BCE Palestine/Israel* (이하 IDD), 1; Izak Cornelius, "Astarte", IDD, 1.

56 R. H. Wilkinson, *The Complete Gods and Goddesses of Ancient Egypt* (New York: Thames & Hudson, 2003), 137-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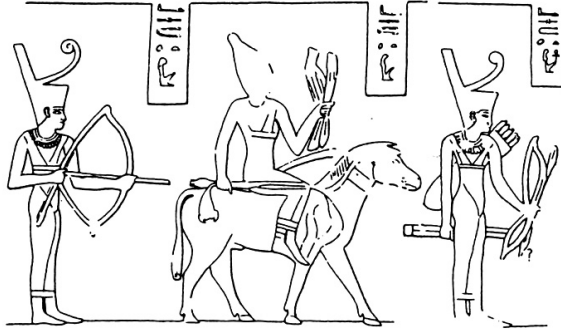


그림 1. 벽 부조, 페르시아 시대, 이집트의 히비스(Hibis)  
출처: Cornelius, 윌글 (2008), fig. 10.

않게 이들을 아낫/아스타르테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57</sup>

〈그림 2〉는 조금 더 후대인 프톨레미 시대 이집트의 에드푸(Edfu)에 있는 호루스 신전에서 발견된 것이다. 병기된 비문은 이 여신이 아스타르테라고 밝히고 있으나, 아스타르테는 〈그림 1〉에서처럼 주로 인간 얼굴로 묘사되는 반면 여기에서는 세크메트와 같은 사자머리로 그려져 있다. 이 머리 부분은 원래 훼손되었었는데 후대에 병거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세크메트의 사자머리로 복원한 것이다. 비문에는 “말들의 주인이며 병거의 여주”라고 쓰여 있어, 말과



그림 2. 부조, 프톨레미 시대  
이집트의 에드푸(Edfu)  
출처: Cornelius, 윌글 (2008), fig. 32.

57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비문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있는 이집트의 이미지들을 가장 먼저 살펴본다.

병거가 여신의 주요 속성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sup>58</sup>

〈그림 1〉 및 〈그림 2〉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스타르테는 주로 말이나 병거를 탄 모습으로 형상화되곤 하는데, 말은 전쟁용으로만 쓰였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병거와 함께 군사적 힘의 상징이었다.<sup>59</sup> 특히 〈그림 2〉에서는 병거 밑에 깔린 적군을 표현하여 군사적 힘을 더 강조했다. 이러한 도상들은 페르시아나 프톨레미 시대 이집트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후기 청동기시대에도 등장하는데, 이 시기의 특성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여신들을 표현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그림 3〉에서는 비문을 통해 아스타르테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벌거벗은 여자가 아테프(atef) 관을 쓰고 무기를 휘두르며 말 위에 타고 있다. 비슷한 도상을 〈그림 4〉



그림 3. 무덤에서 발견된 조각, 이집트(Tell Zawyet Sultan), 기원전 13세기  
출처: Cornelius, 윗글 (2008), 117, Cat. 4.1.



그림 4. 석비, 이집트(Kanais), 기원전 1314-1304  
출처: Cornelius, 윗글 (2008), 117, Cat. 4.3.

58 Izak Cornelius, *The Many Faces of the Goddess: The Iconography of the Syro-Palestinian Goddesses Anat, Astarte, Qedesbet, and Asherah c. 1500-1000 BCE* (OBO 204; Fribourg: Academic Pres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8), 43.

59 임미영, “이스라엘 철기 2시대에 발견된 말 형상들의 의미”, 『케논앤컬처』 2 (2008), 231.

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비문이 없어 아낫인지 아스타르테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이 그림에서는 가슴 부분은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성기 부분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어 벌거벗은 여자의 신체임을 표시하고 있다.

상당히 양식화된 그림의 경우, 가슴이나 성기 표현을 찾을 수 없더라도 쓰고 있는 관이나 비슷한 포즈, 맥락을 통해 같은 여신일 것이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림 5>의 경우, 인장에 새겨진 이미지로 세부적인 묘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아테프 관을 쓰고 말에 올라 타 적군을 밟으며 무기를 휘두르는 도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여신으로 보아도 좋다. 비슷한 인장들이 여럿 있으나 아쉽게도 이 종류의 인장들은 대부분 과학적인 발굴



그림 5. 인장(Scarab), 기원전 1450-1186, 남부 레반트  
출처: Schroer, 윗글 (2011), 318, no. 876.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출처를 알기가 어렵다. 다만 스타일을 통해 추측할 때 남부 레반트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며,<sup>60</sup> 아낫/아스타르테가 우가릿에서 중요한 전쟁의 여신이었고 또한 구약성서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예: 사 3:31; 5:6; 삼상 31:10),<sup>61</sup> 후기 청동기시대 및 철기시대 남부 레반트에서도 여신의 군사적 속성에 대한 관념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6>에서는 뿔이 난 관을 쓴 메소포타미아식으로 신성성이 표

60 Silvia Schroer, *Die Spätbronzezeit* (Vol 3 of *Die Ikonographie Palästinas/Israels und der Alte Orient: Eine Religionsgeschichte in Bildern*) (Fribourg: Academic Press, 2011), 318.

61 Schroer, 윗글, 72-73.



그림 6. 인장 압날, 시파르(Sippar), 기원전 18세기  
출처: Schroer, 윗글 (2011), no. 522.

현된 여신이 성기와 배꼽이 드러나는 형태로 등에는 창을 메고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다. 이 인장 압날(seal impression)은 시파르(Sippar)에서 발견된 것으로, 여신이 가진 군사적 속성과 여신의 섹슈얼한 표현이 양립하는 관념이 중기 청동기 시대 메소포타미아에도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신의 맥락에서 여성성과 군사적 힘을 연관시키는 관념은, 고대 근동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던 관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초목과 병거, 혹은 생명의 힘과 군사적 힘을 서로 병치시키는 예 또한 이집트 및 레반트의 시각적 유산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그림 3>과 <그림 4> 또한 ‘여성 누드’와 전쟁을 나타내는 ‘말’을 병치시킴으로써 생명의 힘과 군사적 힘을 아울러 표현하는 예가 될 수 있다.<sup>62</sup>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 초목과 군사적 힘의 상징들을 병

62 이는 ‘여성 누드’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젖가슴이나 성기가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종종 ‘생명력’과 관련된 상징들을 갖기 때문이다. 다음을 참고하라. Julia Assante, “Sex, Magic and the Liminal Body in the Erotic Art and Texts of the Old Babylonian Period”, S. Parpola and R. M. Whiting (eds.), *Sex and Gender in the Ancient Near East: Proceedings of the 47th Rencontre Assyriologique Internationale*, Helsinki, July 2-6, 2001 (Vol. 1) (Helsinki: Neo-Assyrian Next Corpus Project, 2002), passim;

치시킨 사례도 있다.

〈그림 7〉은 그 한 가지 예이다. 여기에서 일종의 아테프 관을 쓰고 있어 여신으로 짐작되는 벌거벗은 여자가, 양손에 연꽃 가지들을 쥔 채로 말 위에서 있다. 연꽃은 고대 이집트 및 레반트에서 생명과 재생의 상징이었으며,<sup>63</sup> 고대 남부 레반트의 도상에서 드러난 여성의 성기 또한 생명의 힘을 상징한다는 점을 볼 때,<sup>64</sup> 이 그림의 윗 부분은 생명 및 풍성함/풍요와 관련된 힘을 성적으로 시각화해 표현하는 것이다. 반면에 아랫 부분의 말은 전쟁을 상징하기 때문에, 군사적 힘을 시각화해 표현하고 있다.<sup>65</sup> 따라서 이 도상은 생명의 힘과 군사적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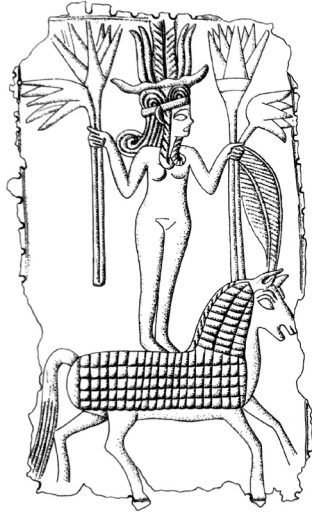


그림 7. 금박, 라기스,  
1300-1150 BCE

출처: Christa Clamer, "A Gold Plaque from Tel Lachisch", *Tel Aviv* 7 (1980), Fig. 1.

Julia Assante, "Style and Replication in 'Old Babylonian' Terracotta Plaques: Strategies for Entrapping the Power of Images", O. Loretz et al. (eds.), *Ex Mesopotamia et Syria Lux: Festschrift für Manfred Deitrich zu seinem 65 Geburtstag* (AOAT 218; Münster: Ugarit-Verlag, 2002-), 1, 6-14, 19-20; Kim, *윳글*, 112-125, 261.

63 Emma Brunner-Traut, "Lotos", *Lexikon der Ägyptologie* 3 (1980), 1092-1094; Silvia Schroer, "Lotus", Manfred Görg and Bernhard Lang (eds.), *Neues Bibel-Lexikon* 2 (1995), 670.

64 Kim, *윳글*, 260-262, 272.

65 말 위에 앉아 있는 그림 1, 3, 4, 5와 다르게 그림 7은 말 위에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신을 그 속성 동물(attribute animal)과 함께 나타내는 방식 중의 하나로서 신성한 이동 수단(mount)으로서 그려진 것이다. 신과 그 속성 동물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며, 따라서 그림 7의 경우 말 위에 앉아 있지는 않지만 말의 분명한 전쟁적 속성이 이 여신에게 속한 것임을 보여준다. 말의 전쟁적 속성에 대해서는 앞의 각주 60를 참조하라. 그림 8에서 케데셋이 사자 위에서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사자는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쉬타르의 전쟁/힘 면모를 나타내는 속성 동물이기도 하다.

을 병치하여 표현하되, 위/아래로 나뉘어 표시된 그 힘들이 가운데의 여신에서 맞물리도록 구성하여 여성성과 결부된 생명의 힘과 군사적 힘이 한 여신의 서로 다른 속성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벌거벗은 여자 혹은 여신이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양팔을 V자 형태로 펼치고 있는 것은 고대 이집트 및 레반트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도상의 한 유형으로, 쿼드슈(Qudšū) 혹은 케데셋(Qedešet)이라고 부른다.<sup>66</sup> <그림 8>처럼 정면을 향한 얼굴에 하토르 식의 머리모양을 하고 태양 원반 모양의 관을 쓰거나 아니면 관을 아예 안 쓰는 형태가 조금 더 일반적이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연꽃이나 뱀, 혹은 어떤 종류의 식물 줄기나 동물일 때도 있으며, 주로 사자 위에 올라서 있으나 동물 없이 그냥 서 있는 경우도 많다.<sup>67</sup> <그림 8>처럼 두 남자 신 가운데에 약간 높이가 위치한 경우는 이집트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형이다.

<그림 8>은 후기 청동기 시대 이집트(Deir el-Medina)에서 발견된 것이다. 가운데 여자가 케데셋, 오른쪽에 무기를 들고 있는 남자 신이 가나안 기원의 레세프(Resheph), 왼쪽에 도리깨를 들고 있는 발기한 신이 민(Min)이다. 풍요의 신인 민의 발기한 모습과 손에 들고 있는 도리깨는 생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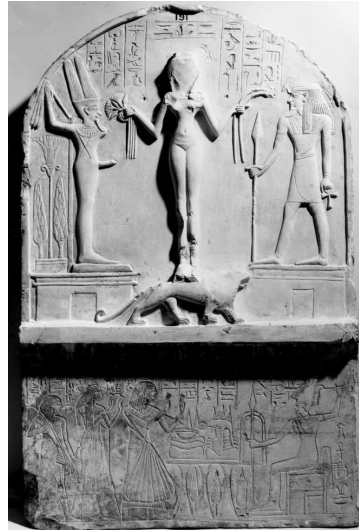


그림 8. 석비, 이집트의 데이크 엘 메디나, 19왕조  
출처: Cornelius, *윗글* (2008), Cat. 5.1.

66 Izak Cornelius, "Qudshu", *IDD*, 1-2;

67 Cornelius, "Qudshu", 1.

및 풍요로움을 상징한다면,<sup>68</sup> 질병을 불러오는 죽음의 신으로 알려진 레세프가 들고 있는 무기는 죽음과 연관된 군사적 힘을 상징한다.<sup>69</sup> 가운데의 케데셋은 민 쪽으로는 연꽃 다발을, 레세프 쪽으로는 뱀을 건네고 있어, 가운데의 케데셋을 중심으로 한쪽은 생명과 풍요의 힘이, 다른 한 쪽은 죽음의 힘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 둘은 대조되는 동시에 결국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레세프가 질병의 신이기도 하지만 질병을 치유하는 신이기도 한 것처럼, 케데셋이 내미는 뱀 또한 고대 근동에서는 재생과 풍요로움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힘의 근원은 양 옆의 신들보다 약간 크고 높게 그려진 케데셋에게 있다. 그녀는 정면을 향해 그녀의 벌거벗은 몸을 보여주며, 양쪽의 신들에게 각각 연꽃과 뱀을 건네줌으로써 그녀가 이 궁극적 힘의 근원임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 그림 아래에는 또 다른 그림이 있다. 제일 오른쪽에 양 손에 무기를 들고 아테프 관을 쓴 여신이 앉아 있고 그 앞에 세 명의 경배자들이 있다. 비문에는 “아낏, 하늘의 여주인, 신들의 주인. 모든 보호와 생명, 안정, 권력 그리고 지배력이 그녀에게”라고 쓰여 있다.<sup>70</sup> 여기에서 아낏이 들고 있는 무기는 그녀의 군사적인 힘을 나타내 보여주며, 경배자들을 통해 그녀의 군림하는 힘 또한 보여준다. 위에서 케데셋을 중심으로 좌우의 생명의 힘과 죽음의 힘이 가운데의 하나의 근원적인 힘 — 여성성과 결부된 생명 — 에 대한 서로 다른 측면이라면, 이 비석에서 위쪽의 총체적인 에로틱한 생명의 힘과 아래쪽의 군사적이고 다스리는 힘이 다시 한 번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은 결국

68 Carsten Knigge Salis and Maria Michela Luiselli, “Min”, *IDD*, 1-2.

69 Izak Cornelius, “Resheph”, *IDD*, 1-4.

70 Cornelius, *윗글* (2008), 80.

케데셋-아넛으로 표현된 같은 힘의 두 가지 다른 양상임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과 〈그림 8〉은 후기 청동기 시대 이집트 및 레반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상으로, 초목과 군사적 상징을 병행해서 에로틱한 여성성과 연결시키는 관념이 당시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철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여성을 누드로 표현하는 관습은 줄었으나, 〈그림 1〉과 〈그림 2〉에서처럼 동일한 여신에 대한 전승이 이어지는 한편 그 여신의 군사적 측면을 말과 병거, 무기로써 표현하는 시각적 관습은 철기 시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 4) 종합 및 결론

본고에서는 아가 6장 11-12절에 대한 언어적 분석을 통해 남성인 화자가 여자 연인과의 합일에서 기대했던 것은 푸른 초목과 꽃 같은 것들이었으나,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영혼이 혹은 자신의 갈망이 스스로를 이끈 곳은 고귀한 병거들이 자리한 곳이었다는 깨달음에서 예기치 못한 놀라움을 느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리고 초목과 꽃은 여성의 섹슈얼한 매력을 상징하는 데 반해, 병거는 전쟁과 관련된 군사적인 힘을 상징한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여성의 에로틱한 여성성이 군대의 압도적인 힘에 비견되고 있음을 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비슷한 사고를 고대 근동의 이미지들로 구현된 시각 전통에서도 찾을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고대 근동 전반적으로 여성성의 에로틱한 측면과 군사적인 측면을 한 여신이 모두 아우르는 특성들로 인식하는 사고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념을 시각적으로 누드 여성을 통해 표현하는 방식은 후기 청동기 시대에 매우 널리 퍼져 있었고, 철기 시대에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섹슈얼한 여신으로 알려져 있던 아넛/아스타르테에게 군사적인 힘을 시각적으로 결부시키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다

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비록 시각 전통으로서는 여신을 더 이상 누드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그 여신들이 가진 에로틱한 측면과 군사적인 측면은 별개가 아니라는 관념은 존속하였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볼 때, 아가 6장 11-12절에서 초목과 병거를 배치하여 본 것은, 마찬가지로 여자 연인으로부터 에로틱한 측면과 군사적인 측면을 함께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쟁 모티프와 함께 등장하는 누드 여신들이 들고 있던 식물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볼 때, 사랑의 에로틱한 측면 안에는 생명, 풍성함, 풍요로움 또한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11절에서 초목을 볼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통해 남자 화자는 이런 것들을 이미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여자 연인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힘까지는 기대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시각 증거들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는 보통 여신들에게 속한 속성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자의 매력은 남자에게 압도적인 힘으로 다가왔고, 남자는 이에 너무 놀라 정신을 잃었다. 결국 남자는 여자를 마치 여신과 같다고 칭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6장 10절에서 여자 연인이 천체에 비유되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즉, 이 단락 전체적으로 남자 연인은 여자의 특별함, 위엄, 유일함을 마치 여신을 찬양할 때 쓰는 것 같은 용어들을 써서 노래한다. 더 나아가, 아가 전체적으로 신들에게 사용되었던 시각적 모티프들을 사용해 연인을 묘사하는 대목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을 볼 때,<sup>71</sup> 6장 11-12절에서 여자 연인의 압도하는 매력을 마치 ‘여신과 같다’고 비유하며 칭송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

71 사슴, 노루, 비둘기는 사랑의 여신에게 속한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아가서에서 주로 ‘백합’으로 번역되는 <sup>1717</sup> (쇼산/연꽃) 또한 ‘연꽃’, 즉 앞에서 보았던 재생과 생명의 상징이며 여신들의 손에 자주 들려 있던 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Keel, 윗글 (1994), 78-79; Pope, 윗글, 368; Kim, 윗글, 233. 또한 여자를 해, 달, 군대에 비유하는 것(6:10) 이외에도, 부족함이 없는 와인잔에 비유한다거나(7:3), 산에 비유하는 것(7:6) 등 또한 신화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Kim, 윗글, 252.

러운 일이다.

이렇게 구약성서의 텍스트와 고대 근동의 이미지를 연결해 해석하는 데 있어, 연대의 문제를 짚고 갈 필요가 있다. 고대 근동의 이미지들은 고대 근동의 장기지속 역사(histoire longue durée)가 물질 문화를 통해 반영된 것들이며, 따라서 구약성서의 텍스트들이 전하는 사건 중심의 역사보다는 긴 호흡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성서의 특정 구절의 편집 연대와 어떤 이미지의 제작 연대가 일치하는 경우도 존재하나, 대부분의 경우 성서의 구절이 나타내는 관념이나 개념이 고대 근동의 문화사상사에서 어떤 흐름 속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도상학을 통해 확인하는 수준의 비교가 이루어진다.

아가서의 경우, 언어적으로 북이스라엘 방언의 특징, 그리고 후대 히브리어의 특징 모두 가지고 있다. 청동기시대 우가리트 문헌이나 이집트 신왕국시대 사랑시에 병행하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미쉬나 히브리어와의 유사성도 있다.<sup>72</sup> 따라서 오랜 구전이 있었으리라 추측되는 가운데 시의 특성상 편집층을 나누기가 매우 어렵다. 아가 6장 11-12절에서 표현하는 관념은 여성성에 군사적인 힘을 결부시키는 것으로 후기 청동기시대부터 그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관념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본문들과 도상들을 연결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게다가 구약성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여신에 대한 숭배의 흔적들 — 인명에 등장하는 아낏(삿 3:31; 5:6), 아스타르테 신전(삼상 31:10), 이쉬타르/아스타르테로 추정되는 하늘의 여왕에 대한 언급 등(렘 44)<sup>73</sup> —

---

72 강승일, *윗글* (2013), 16-18; 이유미, *윗글* (2014), 11-12; 유윤중, “북이스라엘 히브리어 연구에 대한 비판들과 응답”, 『구약논단』 85집 (2022년 9월), 157, 160; 바르비에로, *윗글*, 66-71; David M. Carr, *The Formation of the Hebrew Bible: A New Reconstr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434-447; Kim, *윗글*, 212-218.

73 Schroer, *윗글* (2011), 72-73; Dirk Büchner, “Boshet in Jeremiah 3:24: Disenfranchisement and the Role of the Goddess in Seventh-Century Judah”,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59

은, 전쟁의 속성을 지닌 여신에 대한 대중의 믿음은 남부 레반트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도상학적 방법론을 통해 구약성서 텍스트와 고대근동의 시각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아가서의 난해한 구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국내 성서학계에서 도상학적 접근이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고대근동 이미지 자료의 적극적 활용은 구약성서 해석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승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아가 번역의 개정을 위한 주석적 제안, 「구약논단」 38집 (2010년 12월), 93-113.
- 강승일, 「아가」 (한국장로교총회창립 100주년기념 표준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 김구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이야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 김예슬, 「아브네 제의 스탠드를 통한 아가 2:9의 도상학적 해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15.
- 롱맨, 트렘퍼 3세, 「아가」 (권대영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원저 Longman, Tremper III, *Song of Songs* (Grand Rapids: Eerdmans, 2001).
- 바르비에로, 잔니, 「아가: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안소근 옮김), (서울: 가톨릭, 2014). 원저 Barbiero, Gianni, *Cantico Dei Cantici* (Milano: Paoline, 2004).
- 유윤중, 「북이스라엘 히브리어 연구에 대한 비판들과 응답」, 「구약논단」 85집 (2022년 9월), 154-185.
- 이유미, 「아가」 (연세신학백주년기념 성경주석 20;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 임미영, 「이스라엘 철기 2시대에 발견된 말 형상들의 의미」, 「캐논앤컬처」 2 (2008), 221-250.
- Assante, Julia, "Sex, Magic and the Liminal Body in the Erotic Art and Texts of

---

(2008), 491-493.

www.kci.go.kr

- the Old Babylonian Period”, S. Parpola and R. M. Whiting (eds.), *Sex and Gender in the Ancient Near East: Proceedings of the 47th Rencontre Assyriologique Internationale, Helsinki, July 2-6, 2001* (Vol. 1) (Helsinki: Neo-Assyrian Next Corpus Project, 2002), 27-48.
- \_\_\_\_\_, “Style and Replication in ‘Old Babylonian’ Terracotta Plaques: Strategies for Entrapping the Power of Images”, O. Loretz et al. (eds.), *Ex Mesopotamia et Syria Lux: Festschrift für Manfred Deitrich zu seinem 65 Geburtstag* (AOAT 218; Münster: Ugarit-Verlag, 2002), 1-29.
- Büchner, Dirk, “Boshet in Jeremiah 3:24: Disenfranchisement and the Role of the Goddess in Seventh-Century Judah”,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59 (2008), 478-499.
- Brunner-Traut, Emma, “Lotos”, *Lexikon der Ägyptologie* 3 (1980), 1092-1094.
- Carr, David M., *The Formation of the Hebrew Bible: A New Reconstr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Clamer, Christa, “A Gold Plaque from Tel Lachisch”, *Tel Aviv* 7 (1980), 152-162.
- Cornelius, Izak, *The Many Faces of the Goddess: The Iconography of the Syro-Palestinian Goddesses Anat, Astarte, Qedesbet, and Asherah c. 1500-1000 BCE* (OBO 204; Fribourg: Academic Pres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8).
- \_\_\_\_\_, “Anat”, Jürg Egger and Christoph Uehlinger (eds.), *Iconograph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Ancient Near East: An Iconographic Dictionary with Special Emphasis on First-Millennium BCE Palestine/Israel*, (⊙하 IDD) Electronic pre-publications. [https://www.religionswissenschaft.uzh.ch/idd/prepublications/e\\_idd\\_anat.pdf](https://www.religionswissenschaft.uzh.ch/idd/prepublications/e_idd_anat.pdf) (2025/8/15), 1-5.
- \_\_\_\_\_, “Astarte”, *IDD*, [https://www.religionswissenschaft.uzh.ch/idd/prepublications/e\\_idd\\_astarte.pdf](https://www.religionswissenschaft.uzh.ch/idd/prepublications/e_idd_astarte.pdf) (2025/8/15), 1-7.
- \_\_\_\_\_, “Qudshu”, *IDD*, [https://www.religionswissenschaft.uzh.ch/idd/prepublications/e\\_idd\\_qudshu.pdf](https://www.religionswissenschaft.uzh.ch/idd/prepublications/e_idd_qudshu.pdf) (2025/8/15), 1-4.
- \_\_\_\_\_, “Resheph”, *IDD*, [https://www.religionswissenschaft.uzh.ch/idd/prepublications/e\\_idd\\_resheph.pdf](https://www.religionswissenschaft.uzh.ch/idd/prepublications/e_idd_resheph.pdf) (2025/8/15), 1-6.
- Day, P. L., “Anat”, Karel Van der Toorn et al.(eds.),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2nd ed. (Leiden: Brill, 1999), 36-43.
- Exum, J. Cheryl., *Song of Songs: A Commentary* (OT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5).
- Fox, Michael, V., *The Song of Songs and the Ancient Egyptian Love Songs* (London: The

-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 Graupner, A. and Fabry, H.-J., “שִׁבְיָ”, *TDOT* 14, 461-522.
- Holladay, William Lee, *The Root ŠUBH in the Old Testamen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ts Usages in Covenantal Contexts* (Leiden: E. J. Brill, 1958).
- Hulster, Izaak J. de, *Iconographic Exegesis and Third Isaiah* (Tubingen: Mohr Siebeck, 2009).
- Keel, Othmar, *Das Recht der Bilder gesehen zu werden: Drei Fallstudien zur Methode der Interpretation altorientalischer Bilder* (OBO 12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Fribourg: Academic Press, 1992).
- \_\_\_\_\_, *The Song of Songs: A Continental Commentary* (Frederick J. G. tr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 Kim, Yeseul, *Images of Anonymous Women: A Semiotic Approach to Image-Text Relations in Interpretations of Ancient Near Eastern Art and the Hebrew Bible* (OBO; Leuven: Peeters, forthcoming).
- LeMon, Joel M., “Iconographic Approaches: The Iconic Structure of Psalm 17”, Joel M. LeMon and Kent Harold Richards (eds.), *Method Matters: Essay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Hebrew Bible in Honor of David L. Peterse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9), 143-168.
- Murphy, Roland E., *The Song of Songs: A Commentary on the Book of Canticles or the Song of Songs* (Hermeneia; Minneapolis, MN: Fortress, 1990).
- Novák, Mirko, “Einleitung und Überblick zur Methode”, Erika Bleibtreu and Hans Ulrich Steymans (eds.), *Edith Porada: zum 100. Geburtstag* (OBO 268; Fribourg: Academic Pres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4), 169-175.
- Paul, Shalom M., “An Unrecognized Medical Idiom in Canticles 6,12 and Job 9,21”, *Biblica* 59 (1978), 545-547.
- Pope, Marvin, H., *Song of Song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7).
- Salis, Carsten Knigge and Maria Michela Luiselli, “Min”, *IDD*, [https://www.religionswissenschaft.uzh.ch/idd/prepublications/e\\_idd\\_min.pdf](https://www.religionswissenschaft.uzh.ch/idd/prepublications/e_idd_min.pdf) (2025/8/15), 1-2.
- Schroer, Silvia, “Lotus”, Manfred Görg and Bernhard Lang (eds.), *Neues Bibel-Lexikon* 2 (1995), 670.
- \_\_\_\_\_, *Die Spätbronzezeit* (Vol 3 of *Die Ikonographie Palästinas/Israels und der Alte*

- Orient: Eine Religionsgeschichte in Bildern* (Fribourg: Academic Press, 2011).
- Stoop-van Paridon, Petronella W. T., *The Song of Songs: A Philological Analysis of the Hebrew Book -yrlyVih; ryvi* (ANESSup 17; Louvain: Peeters, 2005).
- Verde, Danilo, *Conquered Conquerors: Love and War in the Song of Songs* (Atlanta: SBL Press, 2020).
- Wilkinson R. H., *The Complete Gods and Goddesses of Ancient Egypt* (New York: Thames & Hudson, 2003).
- Wyatt, N., "Astarte", Karel Van der Toorn et al.(eds.),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2nd ed. (Leiden: Brill, 1999), 109-114.

#### 검색어

아가 6장 11-12절, 도상학, 사랑과 전쟁 모티프, 아낫, 아스타르테, 병거, 고대 근동 이미지

[ ABSTRACT ]

## An Iconographic Approach to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Song of Songs 6:11-12 as a Case Study

Yeseul Kim  
Yonsei University

Song of Songs 6:11-12, particularly verse 12,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passages to interpret in the Song of Songs. Ancient translations, modern translations, and commentators offer divergent interpretations, and numerous emendations to the Hebrew text have also been proposed. The interpretive difficulties stem not only from the ambiguity in the Hebrew text but also from the unclear motivation behind the expression of surprise at the abrupt transition from the garden setting to the chariot context.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history of interpretation of this passage, then proposes an alternative reading utilizing an iconographical method. Iconographical methods, not yet well known in Korean scholarship, can be applied to biblical studies in various ways. This paper focuses specifically on its application to interpreting particular biblical passages or metaphors. After briefly introducing iconographical methodology, the study presents an interpretation of Song 6:11-12 as an example of applying this approach to biblical text interpretation. In this course, biblical texts are thoroughly interpreted by comparing them with other textual sources, while images are analyzed by comparing them with related images. Only after completing these separate comparative analyses are the

www.kci.go.kr

results from both inquiries synthesized.

The study concludes that two concepts appear both in the Song of Songs text and in various images from Egypt, the Levant, and Mesopotamia: ‘woman can be compared to military power’ and ‘vegetation and chariots, or life/love and war, though seemingly contrasting, are different aspects of the same power.’ Thus, Song 6:11-12 reflects a worldview widely prevalent in the ancient Near East. By actively engaging ancient Near Eastern images through iconographic methodology in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we can expect a significantly broadened horizon of interpretation based on cultural-historical information available through visual sources.

key words

Song of Songs 6:11-12, Iconography, Love and War Motif, Anat, Astarte, Chariots, Ancient Near Eastern Images

투고일 : 2025년 10월 20일

심사일 : 2025년 11월 11일

게재 확정일 : 2025년 11월 22일

www.kci.go.kr